



친환경 운전, “나부터” 실천합시다!

–에너지도 절약하고,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는 10가지 방법–



친환경 운전 10계명

최근 치솟는 유가, 심각한 기후변화로 우리의 삶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도 절약하고,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는 비법을 소개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17%는 자동차 등 수송분야에서 발생합니다.(‘05년 기준)

하나. 경제속도 준수

둘. 내리막길 운전시, 가속페달 밟지 않기

셋. 출발은 천천히!

넷. 공회전은 이제 그만!

다섯.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하는 센스!

여섯. 한 달에 한번 자동차 점검

일곱. ‘정보운전’의 생활화

여덟. 트렁크를 비우자!

아홉. ‘친환경 자동차’를 선택!

열. 유사연료, 인증받지 않은 첨가제는 NO!





1

경제속도준수

- 경제속도(60~80km/hr)를 준수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정속 주행한다.
- 속도변화가 큰 운전의 경우, 연료가 최대 6%까지 더 소비된다.



출발은 천천히!

3

- 출발시 차음 5초간 시속 20km 정도까지 천천히 가속하여 출발한다.
- 급출발을 10번하면 100cc(2,000cc 급 기준) 정도의 연료가 낭비된다.

타이어 공기압을 세크하는 선스!

5



- 한 달에 1번 이상, 장거리 주행 전에는 반드시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한다.
- 타이어 공기압이 30% 부족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50km마다 300원씩 낭비된다.



2

내리막길운전시,
가속페달 밟지 않기

- 평소 도로 내리막길에서 자동차의 '연료 차단기능(Fuel cut)'을 적극 활용하는 등 '관성운전'을 생활화한다.

Tip 연료차단기능은 이미 대부분의 자동차에 내장되어 있으며 일정 RPM 이상에서 가속페달로 부터 발을 뗄 경우, 연료가 더 이상 소모되지 않는다.

- 연료 차단기능을 활용하면 오염물질 배출과 연료소비를 20% 이상 줄일 수 있다.

4

공회전은 이제 그만!



- 대기 중이거나 짐을 실고 내리기 위해 주·정차 할 때는 공회전을 하지 않는다.
- 5분 공회전 할 경우, 1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연료(100~140cc)가 낭비된다.

한 달에 한번
자동차정검

6



- 최소한 1달에 한번 에어클리너를 점검하고 엔진 오일 배출가스 관련 부품 등을 교환주기를 준수 한다.
- 에어클리너가 오염된 상태로 운전할 경우, 차량 1대당 연간 90kg의 CO₂가 더 배출된다.

트렁크를 비우자!

8



- 자동차 트렁크에 필요한 짐만 싣는다.
- 불필요한 짐 10kg을 싣고 50km를 주행하면 80cc(160원)의 연료가 낭비된다.

9

'친환경 자동차'를 선택!



- 경소형차, 저공해 자동차, 수동 변속기 차량을 선택한다.

Tip 자동 변속기 차량은 수동 변속기 차량에 비해 연료가 약 15% 더 소모됨.

- 눈높이를 한 단계 낮출 경우(중형차 → 소형차), 평생 약 3천만원의 연료비를 절약한다.

10

유사연료,
인증받지 않은
첨가제는 NO!

- 유사연료, 정부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첨가제는 사용하지 않는다.
- 불량 연료를 사용할 경우, 차량에 무리를 주고 환경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

심각한 기후변화로 우리의 소중한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나의 작은 행동 하나를 바꾸면

우리의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지구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하나뿐인 지구, 함께 지켜갑시다.



427-72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38 정부파친청사
[화] [전] [부] <http://www.meo.go.kr>
[기후변화 총코로나] <http://www.gihno.or.kr>